

코로나19 여파 역대 첫 고등부 축소 개최...광주·전남 체육 미래를 보다



자전거천윤영 레슬링 나홍민 체조 문경수 육상 박도현 육상 최성화 우수 윤여중

‘스포츠 대축제’ 전국체육대회 오늘 팡파르

순연 102회 전국체전, 8-14일 경북 구미 일원서 41개 종목 열전

광주, 자전거 천윤영·레슬링 나홍민·윤동현 금메달 ‘예약’ 전남, 역대 조민재·소프트테니스 순천여고 다관왕 ‘시동’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회구호 아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8-14일 경북 구미 일원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순연돼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역대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등부만을 대상으로 축소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41개 종목에 17개 시도체육회 선수단 1만430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35개 종목 6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광주 선수단은 2년간 준비한 만큼 고등부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전거 천윤영(광주체고)은 이번 대회 2km 개인추발 경기에서 광주에 첫 메달을 안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개인추발 부문 여고부 랭킹 1위인 천윤영은 이번 체전에서 약진해 제97회 체전 이후 약소 종목으로 평가됐던 자전거 종목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각오다. 레슬링 나홍민, 윤동현(이상 광주체고)은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올해 전국대회 전관왕을 노리고 있다. 에어로빅 박혜원, 송창섭, 정성찬(이상 광주체고)은 단체전과 3인조전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특히 송창섭은 지난 제100회 체전에서 고교 1학년으로 참가해 은메달을 머문었으나 그 한을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로 설욕하겠다고 밝혔다. 안마가 주 종목인 형제 체조선수 문경수(광주체고)도 이번 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문경수를 비롯해 문경록(형, 경희대)과 문건영(동생, 광주체중) 3형제 모두 체조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밖에 축구, 야구, 소프트볼, 검도 등 단체종목에서 값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고등부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이번도 많아 메달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36개 종목 709명이 참가하는 전남선수단도 전남 체육의 미래인 고등부 선수들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남은 역대 61kg급에서 조민재(전남체고)가 3관왕에 도전한다. 조민재는 중1-3년 내리 3관왕을 차지한 만큼 이번이 없는 한 대회 3관왕이 유

력하다. 소프트테니스에서는 순천여고가 전 종목 석권에 나선다. 100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개인복식, 개인단식을 석권하며 전국 최강팀으로 부상한 만큼 금메달 갯수에 시선이 집중된다. 자전거에서는 김채연(전남체고)이 다관왕을 예약했다. 48회 소년체전 500m 독주와 단체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스프린트, 500m 독주, 단체스프린트 금메달에 도전한다. 수영에서는 자유형 최강자 김민섭(수 총무고)이 자유형 1500m와 400m에서 금빛 영역을 선 보인다. 육상 포환던지기 박도현(문태고), 110mH 명민건(문태고), 세단뛰기 최성화(전남체고), 우수산타 56kg급 윤여중(순천 복성고), 레슬링 그레코로만 63kg급 윤지원(전남체고)도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오기준 전남수영연맹부회장, 오현성(전남체고·수주) 부자와 양공에 출전하는 손예령·지원(이상 순천여고) 자매는 가족의 힘으로 전남체육을 빛낸다는 각오다. 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체전 목표를 ‘방역체전’으로 설정하고 선수단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선수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개회식은 8일 오후 6시30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유튜브 대한체육회 TV(유튜브)가 개회식을 생중계한다. /박희중 기자

‘제2의 이종범’ 김도영, 4억원 도장



KIA, 신인선수 11명 입단계약 마무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신인 1차 지명으로 낙점한 김도영(동성고·내야수)과 계약금 4억원, 연봉 3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KIA는 7일 “1차 지명 김도영 등 2022

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리는 김도영은 정확한 콘택트 능력에 빠른 발, 안정적인 수비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완성형 내야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도영은 올해 고교 주말리그와 전국대회에서 21경기 출전, 타율 0.456(79타수 35안타) 1홈런 1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39를 작성했다.

KIA는 2차 지명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지명된 최지민(강릉고·투수)과는 계약금 1억5천만원, 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2라운드 전체 15위로 낙점한 윤도현(광주제일고·내야수)과는 계약금 1억원, 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2년 신인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 /박희중 기자

2022년 신인 선수 계약 현황 table with columns: 순위, 이름, 포지션, 계약금, 연봉, 계약기간



서용규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명진 광주시장에인사격연맹 회장 등이 시격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 종목 단체 격려 방문

장애인체전 선수단 선전 기원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선수단을 방문해 선전을 기원했다.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광주의 명을 걸고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격려방문을 진행한다. 지난 5-6일에는 사격·당구·롤볼·사이클·농구·태권도·역도·육상·조정·골볼·볼링·배구 선수단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고 응원했다. 이번 격려방문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됐다. 7일에는 보치아·양궁·골프·수영·게이트볼·테니스 선수단을 찾아 선전을

당부했다. 8일에는 펜싱·탁구 선수단, 10일은 축구와 배드민턴 선수단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열리며 광주선수단은 22개 종목에 412명(선수 286명, 임원 및 보호자 126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1년을 포함한 2년간 기량을 갈고 닦았다. 이번 대회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수해 참가할 예정이며, 광주시 장애인선수단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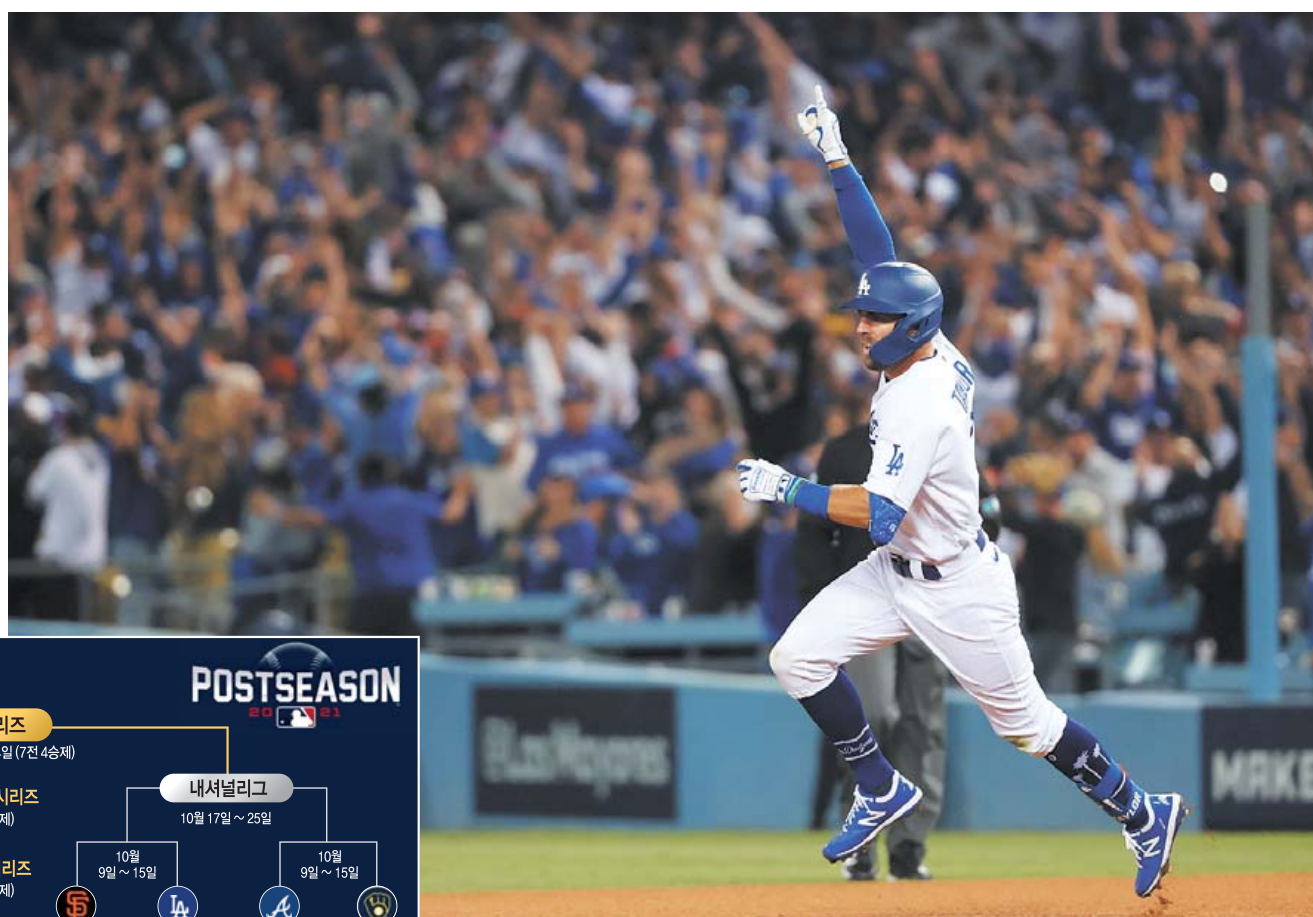
안산 선수 팬클럽 ‘랜산 언니들’ 광주 특수학교 5곳 후원금 전달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는 7일 “도교율 림픽 3관왕 안산 선수의 팬클럽 ‘랜산 언니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금한 570만원의 후원금을 광주지역 5개 특수학교 장애인학생선수 19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랜산언니들’(산이를 왕사랑하는 랜산언니들)은 안산 선수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로 이뤄진 모임으로 안산 선수의 패럴림픽 응원에 대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다. 안산 선수가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학과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고 광주지역 5개 특수학교의 장애인학생체육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시장애인의체육회는 제15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19명의 특수학교 장애인학생선수를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특수학교장 간담회에 참여한 교장선생님들에게 약속으로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용규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안산 선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학생선수들이 안산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9회말 투아웃 끝내기포’...다저스, 세인트루이스 꺾고 NLDS 진출 “샌프란시스코 나와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9회말 투아웃에 터진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꺾고 2년 연속 월드시리즈(WS)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다저스는 7일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결정전 단판 승부에서 세인트루이스를 3-1로 꺾었다. 이제 다저스는 오는 9일 시작하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로 올라가 ‘숙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만난다. 서부지구 전통의 라이벌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7일 열린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시즌 NL 와일드카드결정전. 9회말 2사 2루에서 다저스의 크리스 테일러가 끝내기 투런포를 터뜨린 후 환호하며 베이스를 돌고 있다. /AFP=연합뉴스



‘허무하게 끝난 두 번째 가을’...김광현, “굿바이 STL”

미국에서는 FA 신분, KBO리그에서는 SSG 보류권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단 한 경기만 치르고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김광현(33·사진)과 세인트루이스의 2년 동행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김광현은 와일드카드결정전 로스터(26명)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광현은 아쉬움 속에 2021시즌을 마감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김광현은 27경기에 등판해 7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46을 올렸다. 선발로 등판한 21경기에서는 6승 7패 평균자책점 3.63, 구원 등판한 6경기에서는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가 2021년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김광현은 미국에서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포스트시즌 후 본격적인 이적 시장이 열리면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는 SSG 랜더스가 김광현의 보류권을 쥐고 있다. 김광현은 2016시즌이 끝나고 SSG의 전신 SK 와이번스와 4년 85억원에 FA 계약을



김광현은 SK와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상태에서 2020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부친 있는 한 시즌을 보낸 김광현은 곧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거취를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